어린이 책꽂이

▲리버=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견 '리버'를 주인공으로 신경호씨의 동화. '리버'는 태어날 때부터 안내견으로 지정돼 정식으로 훈련받은 개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 들어갔다가 버림받은 불쌍한 개다. 버림받은 개와 상처받은 인간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창해·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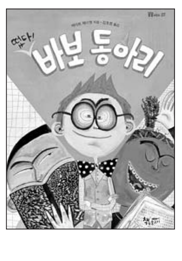
▲움직이는 섬=평화주의자로 낙인 찍혀 괴로웠던 담이와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진규가 불시착한 움직이는 섬.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친해지는 아이들, 어느 날 섬에 영원히 머물려는 계획이 적힌 공책 한 권이 발견되는데…. 아이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서로 간의 다툼, 화해와 치유를 그렸다. 〈한겨레아이들·9000원〉

▲왕코딱지의 만점 수학=수학보다 코딱지 파는 것을 더 좋아하던 대오가 수학에 재미를 붙여가는 과정을 익살스럽게 그려낸 동화다. 말하는 코딱지는 수학을 지루해 하는 대오에게 수학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 준다. 어렵기만 하던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자연스레 수학의 원리를 익히게 한다. 〈처음주니어·9500원〉

▲우리 형이니까=전작 '난 형이니까'를 통해 형의 입장에서 말썽꾸러기 동생의 이야기를 담은 일본 작가 후쿠다 이와오가 이번에는 동생이 들려주는 형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가끔은 엄마 아빠보다 무섭게 해도, 키도 크고 힘도 센 형을 절대 이길 수 없어도, 동생은 마냥 형이 좋다고 한다. 〈아이세움·9500원〉

▲S.O.S. 위기의 아이들=국제연합아동기금이 추천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인권 동화이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림과 간결한 문체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교육, 평등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또 어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행복해져야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사실도 알게 해준다. 〈주니어중앙·1먼2000원〉

▲초록눈 코끼리=동물원의 슈퍼스타로 인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초록눈의 코끼리 범벅이가 불현듯 자신이 100년 전 아프리카에서 길잡이 노릇을 하다 죽은 코끼리가 환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육사가 꿈인 열세 살 소년 환희와 탈출 계획을 꾸미는 등 파란만장한 여정이 펼쳐된다. 〈푸른숲주니어·9000원〉



▲떴다! 바보 동아리=엄친아, 엄친딸이 아닌 평범한 10대들이 모여 만든 '바보 동아리' 아이들이 펼치는 좌충우돌 성장기이다. '부모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아이들'이 제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진짜 자신의 모습대로 살고자 투쟁(?)을 벌인다. 나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세 명의 '바보'들은 과연 행복해질까? 〈책속물고기·9800원〉

▲전학 온 친구=아빠의 직업 때문에 전 세계를 옮겨다니며 전학을 다니지만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선데이의 이야기다. 선데이는 안경을 쓰고 체조를 좋아하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무시하지 않는다. 취미가 많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세용출판·1만2000원〉

광대·노비시인·유랑예인 등 알아주는 꾼들 이야기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

안대회 지음

"꾀꼬리란 놈은 노래를 잘하니 첩을 삼기 제격이요 / 제비란 놈은 말을 잘하니 종년 삼기 제격이요" 조선후기 노래꾼 '통영동이'가 지은 당시 최고의 유행가 '백조요'(百鳥謠)의 한 대목이다. 통영 출생이어서 '통영동이'라 불렀던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님인 보잘 것 없는 민초였다. 하지만 동생을 찾아 팔도를 떠돌던 그의 딱한 사정과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한문학자인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가 신간 '조선을 사로잡은 꾼들'을 통해 비주류 사회에서 살았지만 당대의 최고 인기를 누린 조선후기 '명물'들을 소개한다. 조선 영조~헌종때 시인 조수삼(1762~1849년)의 '추재기이'(秋齋紀異)에 간략히 언급됐던 명물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냈다.

책은 광대, 재담꾼, 유랑 예인, 책 읽어주는 사람, 비구니, 기녀, 노비 시인, 천민 서당 선생, 조방꾼, 점쟁이 등 시대를 사로잡으며 한판 놀아나던 조선의 명물들을 소개한다.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당대 꾼들의 이야기와 함께, 18세기 조선의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조선 후기 영·정조 때 꽃 핀 새로운 시대 분위기와 상업 문화로 시장(市場)이 대중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 주목한다. 이 공간에서 수많은 명물들이 한바탕 놀았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성대모사 전문가인 구기(口技), 저잣거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뚜쟁이 조방꾼, 만능 엔터테이너 광대가 탄생했다.

18세기 후반 성균관 부근에 있던 우암 송시열의 고택에 한양 최대의 서당이 들어섰다. 훈장은 노비 출신 정학수. 신분은 비천했지만 '정 선생'으로 불리며 교육자로서 큰 명성을 얻었고, 국왕 정조까지 그의 존재를 알았다. 경쇠를 울려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려야 할 정도로 학생이 몰렸던, 당시의 최고 스타강사였다.

당대 최고의 언터테이너는 거지 두목 출신의 광대 달문이었다. 그는 외모는 천하의 추남이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광대였다. 황진이의 미모에 빠진 지족선사를 조롱하는 만석중놀이, 산대놀이의 하나인 철괴무, 남사당놀이의 땅재주넘기와 비슷한 팔풍무를 주특기로 세상살이에 지친 백성들을 위로했다. 또 천민 나무꾼 시인 정초부의 명성과 활약상, 짤막한 기록으로 남아있던 재담꾼 김 옹이 김중진이라는 사실도 소개된다.

18세기 후반 여씨 집안의 노비였던 정초부는 주인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바로 외워버리는 천재였다. 과거 시험에 필요한 과시(科詩)를 잘 지어 주인집 자제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여승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았던 이가 거부로 유명했던 무인 남휘라는 사실도, 사재를 털어 고향 빈민들을 구제하고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제주 기생 출신의 여갑부 김만덕의 삶도 만날 수 있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도포 차림에 갓 쓰고 삼현육각을 연주하는 악사들. 김준근 작 '오음육률 불고'.

하버드 클래식 50권을 읽고…

하버드 인문학 서재

베하 지음

현대인의 독서 여건은 그리 녹녹치 않다. 그것도 고전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야말로 일반인인 크리스토퍼 베하가 쓴 '하버드 인문학 서재'는 이런 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책은 베하가 2007년 1년 동안 '하버드 클래식' 50권을 독파한 뒤 느낀 점을 쓴 '독서일기'다.

'하버드 클래식'은 하버드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찰스 엘리엇이 1909년 은퇴하면서 편집한 고전 선집으로 권당 400~500쪽 분량으로 전체 50권에 달한다. '5피트 책꽂이'라는 별칭답게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인문학 고전 모음집이다.

애서가였던 외할머니 집에서 이 전집을 처음 접하게 된 저자는 외할머니에 대해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또 한편으론 휘청거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바람으로 1년 안에 전집을 독파하기로 결심한다.

책은 단순히 고전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은 아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고전에 녹여 그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고전이 삶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 고전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법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전한다.

교훈을 주거나 가르치려는 위치가 아니라 같은 독자의 시선으로 썼기 때문에 신선하다. 〈21세기북스·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애인 카툰작가 자전에세이

달달한 인생

지현곤 지음

장애인 카툰작가 지현곤(49)씨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전에세이 '달달한 인생'을 출간했다.

지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척추결핵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된 된 후 바깥 출입을 포기하고 만화책을 베껴가며 홀로 그림을 그렸다. 쪽방에 누워서 왼손으로 힘겹게 그린 그림은 그 후 대전국제만화전 대상(1994년), 국제서울만화전 대상(1995년)을 받았고 2008년 한국 카툰작가로는 처음으로 뉴욕 아트게이트 갤러리 초청으로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 소개된 모든 작품이 한 달여 만에 판매되는 기록을 남겼으며 그 후 그의 작품은 아픔을 이겨낸 따뜻하고 깊은 울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두 평 방 골방에서 장애를 딛고 전 세계에 평화와 사랑의 메세지를 전해온 지 씨의 '독수공방 인생 수련법'을 담은 에세이는 그 자체로 진한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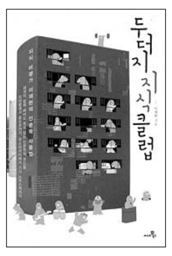
40여 년간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좁은 방에서 지내온 그지만,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통찰력은 깊은 울림을 준다. 조카들을 돌보는 기쁨, 처음 통장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 등 장애인으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진솔하게 담겼다. 또한 그동안 소개됐던 카툰 작품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생각의 나무·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두더지 지식 클럽

이재현 지음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는 이재현씨가 39가지의 역사와 텍스트를 통해 한국 사회를 읽는 평론집 '두더지 지식 클럽'을 냈다. 역사적 인물(혹은 사물)을 불러내어 가상 인터뷰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했다.

래리 킹에게 영어 권력을, 리어왕에게 고령화 사회를 묻는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 마리안느를 불러와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익 정치인 기시 노부스케와 좌익 테러리스트 에키다 유키코를 불러 일본 우경화를 논한다.

클라우제비츠와 핵전쟁을, 벅시와 강원랜드를, 축구공과 월드컵의 그늘을, 된장녀와 성차별을, 키케로와 인문학의 위기를 블랙홀과 사회주의를 프리모 레비와 레바논 문제를 말한다.

이외에도 아부 바크르, 이시와라 간지, 밴 플리트, 여론조사, 올더스 헉슬리, 효도르와 크로캅, 박현채, 존 도우와 전국책, 시마 과장과 20세기 소년, 시애틀 추장과 선재동자, 토머스 제퍼슨과 유스타치아, 파블로 피카소와 수전 손택 등 39가지 역사와 텍스트와 문학 속 소재들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거듭난다.

이렇게 나눈 대화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읽는 훌륭한 '지식시사연감'의 역할을 수행한다. 〈씨네21북스·1만4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미분양
광주의 강남!
봉선동 The 더쉴아파트
25% 파격할인!
최대 1억2천만원 할인!
고층 대물 물건 최다 보유!
44py 54py 65py
공동중개 문의환영!!
봉선동 더쉴 할인 물건 전문 공인중개사무소
제석공인중개사
분양문의 062)673-3100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1층이 옷매장들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적합 조립, 제조회사 가능하며 지하 주차장 완비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100평 매물 (다량보유)
구함 : 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있음)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동신대 ~ 나주 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흥가능
장 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송간 5 · 18 광로변)
⑤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방화지구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T.681-5666 H.011-6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복돼지부동산
광주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급매
현대"힐스테이트" 전망 좋은 옥탑 방 급매 (192㎡ 58py)
• 총 분양가 •
5억 6천 136만
• 계 약 금 •
5613만원 납부
• 매 매 가 •
주인사정상 싸게 급매
문의 062) 364-1613 010-9005-2223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융자 12억
■토지 164평 건물 598평 (매가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예상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등)
■834㎡(250평)- 매가 평당 1,300만원(콜럼버스극장과 메가박스중간사거리카도)
■3,224㎡(975평)-평당950만원
■1,651㎡(500평)-평당900만원
건물(임대용,투자용)
■(농장) 73,000㎡(2만2천평)전, 답 평당 10만원(동산동)장기투자로 좋은곳
■(공장가능) 송촌동 자연녹지 7,724㎡ (2,200천평)전(매매가평당55만원)
■(상가)상무역주변 1층 약100평 매가 평당2,300만원(브랜드의류등 적합)
■(농장)나주 산포 50,000㎡(1,5000평) 평당35만원
■(주택)안청동 토지843㎡(255평) 주택 35평 매매가 평당 85만원
■(기타용도)동림동 준주거지역(1,352평)매매가 평당 350만원(예식장, 병원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돔 감자탕 1층)